• 풍향계 •

대덕밸리 실리콘밸리 세 번째 '상륙작전'

▲ 실리콘밸리

대덕밸리 벤처기업이 세 번째 실리콘밸리 공략작전에 나섰다.

대전시와 대덕밸리벤처연합회(회장 백종태),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는 지난 2일 실리콘밸리 써니베일 쉐라톤호텔에서 'Korea Technology Excutive Summit 2002' 행사를 개최했다.

대덕밸리는 이번에 대구 벤처기업들과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양 지역이 공동전선을 구축해 실리콘밸리로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에는 대덕밸리 벤처기업 7개사와 대구 벤처기업 6개사 등 총 13개 기업이 참가했으며, 실리콘밸리 마케팅 전문회사 7개 기업 20여명의 마케팅 및 세일즈 담당자들이 참가했다.

행사에는 13개 기업들이 각각 부스를 마련해 1대1일 마케팅 및 세일즈를 갖고 양국 기업간 협력을 타진했다. 현지 마케팅 회사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회사 부스를 방문해 긴밀한 대화를 나누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광통신 공구기업인 금오통신(대표 김용태)부스를 방문한 CNL社 데이비드 장 대표는 "미국에도 관련기업은 많으나 광공구를 만드는 기업은 없다"면서 "다시 만나 보다 큰 그림을 그려보자"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금오통신 · 티에스온넷 · 해빛정보 · 베스트존 · 하이로보텍 · 실텍 · 다림비젼 등 7개 기업이 참가했다.

▲ 쎄니베일 쉐라톤호텔 연회장

대덕밸리 기업들 특명, "허리병을 고쳐라"

'특명! 회사의 허리를 강화해라'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이 회사의 '허리역할'을 할 중간 관리자급 직원 영입에 나섰다.

벤처기업들의 상당수가 창업 당시 기술을 보유한 경영진과 이후의 신입사원간 갭이 커 '허리병'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대덕밸리 벤처기업 가운데 중간 관리자급 직원을 영입한 회사는 씨아이제이(대표 백종태)와 애니솔루션(대표 장용복), 파미(대표 황석영), 엘피스바이오텍(대표 심찬섭) 등 대략 5개 기업.

이들 회사들이 영입한 인사들은 수년간 대기업에서 근무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조직 안정화와 기업성장을 앞당기는데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RF 부품 전문기업 '씨아이제이'는 지난 11월 삼성정밀화학에서 15년간 근무한 최주락 팀장을 영입해 조직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

전자부품 검사장비 개발기업 '파미'도 대기업 출신 중간 관리자를 영입한 케이스. 이 회사는 지난 4월 삼성테크윈에서 공장자동화(FA) 및 SMT 팀에서 잔뼈가 굵은 박상병 팀장을 이사로 모셔왔다.

한국통신 사내벤처기업인 '애니솔루션'은 대기업과 벤처기업을 두루 경험한 이세환 부장을 영입해 탄탄한 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다.

'엘피스바이오텍'은 지난 5월 삼성전자 정보통신연구소 기술기획팀과 아이러브스쿨에서 마케팅 이사를 담당하던 성기범 이사를 영입해 왔다.

대덕밸리벤처연합회 백종태 회장은 "이와 같은 움직임은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의 업력이 높아지면서 경영기획 및 조직관리 측면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지고 있음을 반증한 결과"라며 "이들이 튼튼한 허리를 가진 회사로 성장 발전시켜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풍향계 •

박노해 시인, '기업문화' 강의

▲ 박노해 시인

'노동의 새벽' 박노해 시인이 대덕밸리를 찾았다.

80년대 민주화와 노동해방을 부르짖은 극좌 운동가로 유명한 그는 이날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나눔 철학 전도사로, 대덕밸리 기업인들에게 기업문화의 중요성과 나눔 철학의 의미를 전했다.

박 시인은 "벤처는 완전히 갖춰진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기업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한번에 흔들릴 수 있다"면서 "벤처만의 끈끈한 문화만이 다른 기업이나 대기업의 공세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잘 짜여진 대기업과 달리 벤처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독특한 그들만의 기업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는 기업문화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임파워먼트라고 제시했다. 적절한 권한 이임은 생명력 있는 자율기업으로 가고 대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업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시인은 이런 의미에서 기업의 역할중의 하나가 나눔의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나눔은 단순한 자선이 아닌 창조적인 자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연줄이 닿는 사람끼리는 잘 나누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나눌 줄을 모른다"면서 "내가 먼저 나누는 것은 적극적인 자기 수행과 사회개혁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나눔의 실천을 참가자들에게 강조했다.

• 신제품/신기술 •

코어벨, 임베디드 리눅스기반 교육용 툴킷

임베디드 리눅스를 기반으로 각종 제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 교육용 툴킷'이 출시됐다.

코어벨(대표 최훈)은 1년간의 연구 끝에 임베디드 리눅스 개발시스템인 'LDS시리즈'를 개발했다.

LDS는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지원되는 하드웨어나 풍부한 소프트웨어 및 예제, 쉽게 작성된 교재 및 메뉴얼을 통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 교육 및 임베디드 리눅스 기초와 응용에 이르기 까지 폭넓은 활용이 가능하도록 꾸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회사 측은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대학교에서도 산업현장에 가장 근접한 최신 임베디드 리눅스 기반 기술 장비로 원하는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 042-863-0340

지지21, '케치웨이플러스' 출시

GPS · GIS 전문 기업 지지21(대표 이상지)은 기존 GPS 네비케이터 제품인 '케치웨이'의 성능 및 기능을 대폭 개선시켜 '케치웨이플러스'를 출시했다.

'케치웨이플러스'는 운전자가 최종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필요한 목적지 안내기능, 감시카메라 단속 알림기능 등의 각종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용 GPS단말기다.

기존 제품이 '목적지 길안내', '안전운전 지역 알림', '관제지원 기능'만을 지원했던 반면, 이번 제품에는 기존 제품기능을 포함해 '목적지 음성안내 기능'을 비롯해 '제한속도 설정기능', '고속도로 전용차로 알림기능' 등을 추가시켰다.

우선 이번 제품은 모든 GPS장비의 주요기능인 '목적지 길안내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다. '목적지 음성안내 기능'이 추가돼 목적지 주소 및 격자좌표를 입력하면 출발시 음성과 LCD화면을 통해 목적지를 안내한다.

문의 : 042-822-9921